

늘목목장  
남군희(62) 대표,  
후계자 남상용(37)

## “청정육종농가 되려면 우량종축 생산 위한 사명감 중요”

“원유의 질과 소의 체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기후와 풍토, 조사료에 맞는 종모를 만들어 목장에 돈을 벌어주는 종축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에 위치한 늘목목장의 남군희 대표(62세)는 지난 2009년 '제1호 청정육종농가'로 발탁되며 7년간 수정란 송아지 100여 두를 생산했다. 현재 '한국형 종모'를 생산하겠다는 자부심으로 후계자인 남상용 씨(37세)와 목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남군희 대표를 만났다.

## 자연스럽게 시작된 소와의 인연,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낙농

“어렸을 때 집에 부림소(일소)로 한우가 있었으니까 소와의 인연은 깊죠. 197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을 하면서 당시 300만 원 용자를 받아 한우를 두 마리 샀어요. 그렇게 집에 있던 한우와 합쳐 총 20두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평탄했다. 이제 잘 길러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겠거니 하려던 찰나. 남군희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198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과 함께 대량으로 생우들이 수입되면서 소 값이 바닥을 친 것이다. 5~6두를 팔아봐야 1마리 값도 안 되었던 당시 남 대표는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악물고 남 대표는 주변 농가의 벼 수확을 도와가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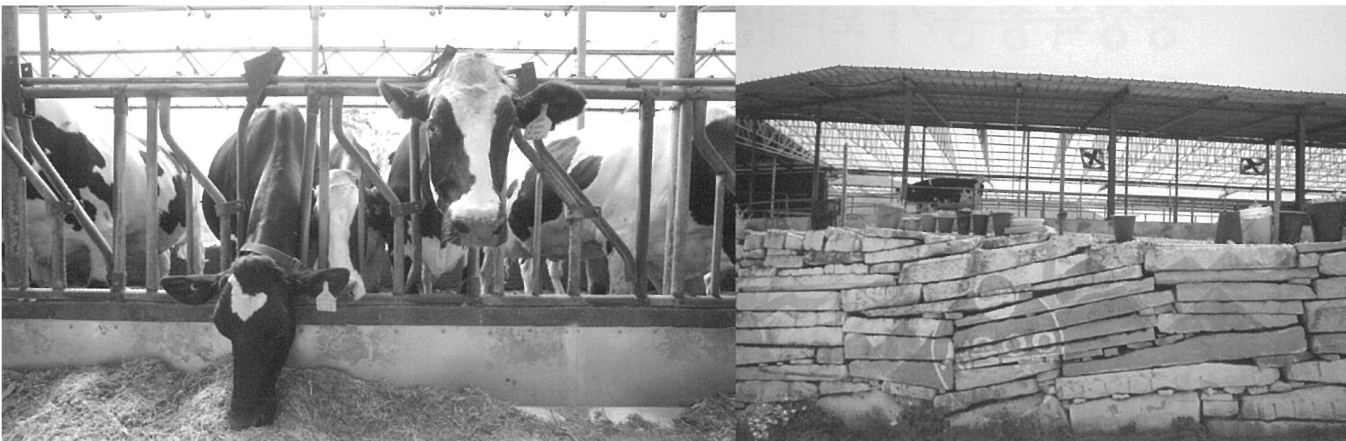
어느 정도 빚을 청산해가던 무렵, 주변에서 젖소가 좋다는 말을 듣고 1984년부터 낙농을 준비하면서 착유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

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가 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남군희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인데 눈을 떠보니 하천 얼음바닥에 내버려져 있었죠”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상황, 치료를 받는다고 받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터에 근 1년간 조금만 무리하면 코피를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젊었기에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남 대표는 1985년도에 젖소 송아지 5두를 샀고 1989년도에는 서울우유 조합원으로 가입, 납유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 남 대표는 착유소 53두, 총 10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서울우유에 일평균 1.7톤~1.8톤을 납유하고 있다.

## 손수 농장 조성부터 축사 건축까지... 남다른 애착

남군희 대표의 농장이 있는 곳은 원래 산비탈이었다. 이곳을 트랙터를 이용해 개간을 하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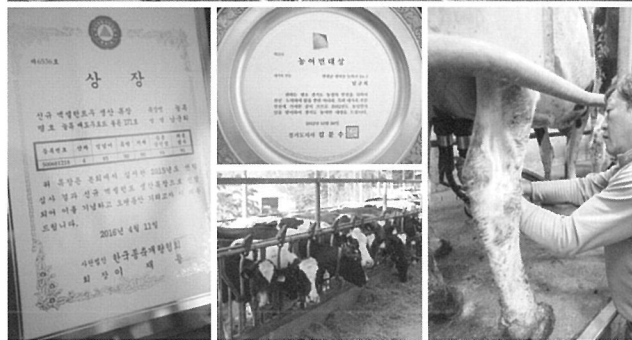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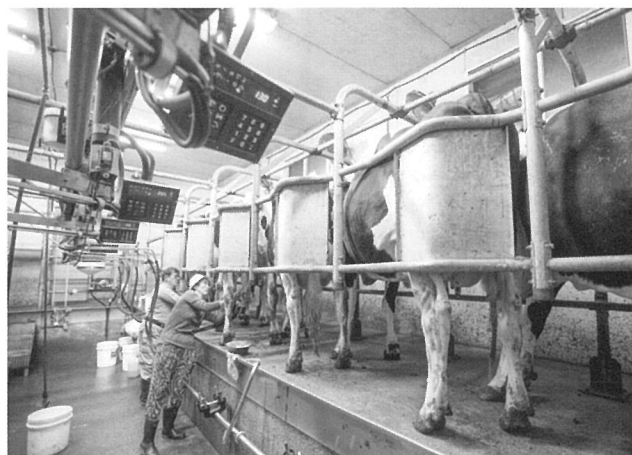
근에서 돌을 가져다 담벼락을 쌓아 평지로 만들었다. 손으로 직접 쌓은 담벼락도 군데군데 있다.

1992년도에는 현재 크기로 확장하면서 아들 남상용 씨와 함께 농장을 조성하고 축사도 직접 지었다. 설계부터 도색, 용접까지 전문가 아닌 전문가로서 축사에 정성을 들이다 보니 남 씨 부자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조경까지 신경을 썼고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꽃나무들이 반기는 목장으로 발돋움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탈에 농장을 일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 저와 아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정체죠. 막내딸이 서른세살인데 여기 와서 낱고 길렀으니까 농장을 만든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 실패에서 깨달은 유방염 관리법, 그리고 1호 청정육종농가 획득

남군희 대표는 낙농 초기, 젖소가 유방염에 걸리면 남들 하던대로 항생제 쓰고 연고도 발라봤다. 하지만 유방염이 걸린 젖소는 약값에 수고비, 치료비까지 몸값을 다 까먹고 결국 도축장으로 향하게 됐다. 유방염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수개월 내에 재발해버리기 일쑤였다. 고민하던 남 대표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약을 쓰지 않고 인내하며 소



를 돌보았고 결국 방법을 찾아냈다.

“항생제는 소를 망치는 길이에요. 전에 쓰던 항생제는 선반에 있는데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항생제를 쓰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깨끗한 우유를 만들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현재 50두 조금 넘게 착유를 하는데 유방염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듯 유방염을 이겨내고 면역력을 갖춘 젖소들이 생겨난 탓에 5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됐다. 결과적으로 남 대표는 2009년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육종농가사



업 일반목장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당시 희열과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 대표는 청정육종농가 8년 차인 현재는 캐나다 씨암소 상위 0.1%의 수정란을 받고 있다.

수정란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남 대표는 건강한 젖소를 만드는 방법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먼저 생후 3개월까지 개별 우사에 넣어 하루 8~10ℓ의 우유를 마시게 해 강화포유를 시킨다. 이후에는 송아지 칸으로 이동시켜 7~8개월간 자유롭게 급식을 한다. 마지막으로 계류식 우사로 보내 제한급여를 하고 13~14개월이 됐을 무렵 수정란을 이식해 주고 있다.

“순차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13~14개월 때 자궁이 가장 튼튼해지고 엄마로서의 능력이 상당히 우수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00여 두가 넘는 수정란 송아지를 생산했고 올해 전반기에는 100%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 수입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는 ‘한국형 종모’ 만들 것

“청정육종농가 1호라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 기후와 풍토, 국내산 조사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토착화된 한국형 종모를 꼭 만들어 대한민국 낙농가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올 가을부터 저희 젖소가 종모 최종심의 대상에 오르는데 잘 되어서 종축에 선발됐으면 합니다.”

2008년도 협회가 주관하는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최우수상은 물론, 2009년 청정육종농가 선정, 대가축 부문 경기도 농어민대상, 국무총리상, 최근에 받은 액셀러트우 생산 목장상까지 거머쥔 남군희 대표에게 낙농은 인생의 전환 포인트이자 성공의 길이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의지로 한국형 우량종모를 생산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종축목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